

확고하고 단호한 대응 원칙

어떠한 무력 도발도 개전 초기에 격멸한다

어떠한 무력도발도 개전 초기에 격멸한다. 우리 국가방위력은 장비 현대화를 통해 꾸준히 증강되어 왔다. 또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충분하다. 여기에 더하여 한·미 연합 방위 체제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다. 우리의 국방력은 개전 초기에 수도권 북방에서 충분히 적을 저지, 격멸할 수 있다.

수도권을 반드시 지킨다

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국가의 주요 기관들은 물론 많은 인구와 경제력 등 국력의 제요소가 집중되어 있다. 정부는 '수도권을 반드시 지킨다.'는 확고한 의지와 기본 방침 아래 각종 상황에 따른 대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완비해놓고 있다.

